

# 2030 남성은 왜 민주당에 등 돌리나

평화문·뷰



어수웅  
여론독자부장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최근 화제가 된 대학교수 '진보 엄마'가 있다. 비유하자면 수평에서 건진 내 아들. 또래 중고교 남학생처럼 극우 유튜브에게 오염되어 소위 '허름·일베' 사상에 물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구출'했는가에 대한 소셜미디어 검증이 있었다. 진영에서 영웅 대접을 받더니, 김여중 유튜브 방송에도 등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스토리가 부각될수록 2030 남성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 생각한다. 본말이 전도된 치료이자 구출이기 때문이다.

평등과 다양성을 앞세운 서구문화는 이미 결혼 제도와 출산율에서 필패다. 가부장제가 기세등등하고 일부다처제로 출산까지 압도적인 무슬림 이민자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무신론적 휴머니즘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슬람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性)의 자유 경쟁 시장에서 패배한 주인공은 이렇게 탄식한다. "난 여자한테 투표권을 주고, 남자와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고, 똑같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 따위가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대착오가 지지받을 리 없다. 하지만 문제극우 이념에서 내 아들 구했다며 화제가 된 대학교수 '진보 엄마' 박달감 외면하고 '구출' 운운하면 민주당에 대한 환멸만 심해질 것

는 특출하지 못한 젊은 남성의 누적된 박탈감이다. 아버지가 공산당이었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죄를 물어선 옳지 않듯, 특권을 누렸던 아버지 세대의 책임을 자식에게 묻는 건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생애 주기의 학교와 군대와 결혼 제도에 반박되는 열매감. 게다가 결혼으로 표현 못 하지만, 커튼 뒤에는 더 근본적인 분노가 있다. 부(富)뿐만 아니라 성(性)도 이제 양극화다. 현대사회가 다량 배출할 능력 있는 알파걸들이 최소한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배우

자만 찾는 현실에서, 무력한 베타남들은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연전연패다. 우엘베크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본주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복지로 책임지듯, 성의 자유 경쟁 시장에서 탈락한 약자 남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은 왜 없냐고.

전술했듯, 이 현상은 이미 세계의 고민거리다. 밖으로는 이민자에게, 안으로는 알파걸에게 밀린 유럽의 '외로운 늑대' 들은 기회만 생기면 폭발한다. 한국에선 이름도 가물가물하지만, 14년 전 노르웨이에서는 한 외로운 늑대가 자기 또래 청년 77명을 총기 난사로 숨지게 한 최악의 사건이 있었다. 이민자에게 맞서는 유럽 독립 전쟁의 투사이자 십자군 전쟁의 기사로 자신을 내세웠던 당시 서른두 살의 브레이비크. 하지만 여러 해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무대 위의 그는 연애 시장의 패배자였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코와 턱을 깎는 성형수술까지 받고 돌아왔지만, 북유럽의 동년배 젊은 여성들은 그에게 한 줌의 관심도 주지 않았다.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와 서부지방 난동에 등장한 2030 남성으로 돌아온다. 좌파는 늘 개인보다 구조와 시스템의 책임을 앞세운다. 그 논리대로라면 가부장제의 붕괴와 양성평등의 거대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도 피해자이자 희생양. 그런데도 남자인 내가 못한 탓이라며 '치료'와 '구출' 운운하는 한, 민주당에 대한 2030 남성의 환멸은 더 커질 것이다.

2030 남성의 보수화, 우경화는 지구적 현상이다.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프랑스의 공쿠르상 작가 미셸 우엘베크(67)가 있다. 유럽에서 그 귀하다는 우파 지식인인데, 남성에 대한 이 마초 소설가의 연민은 강박적인 데가 있다. 오늘의 유럽 현실에 대한 통렬한 예언으로 지금도 인용되는 10년 전 장편 '복종'에서, 그는 정교일치와 일부다처제의 이슬람이 프랑스의 정치와 문화를 장악한다는 디스토피아적 반어법으로 이 사안을 경고한 바 있다.

우경화의 아트 스토리 [567]

## 세상의 저편

미술가 듀오 문경원(1969-)과 전준호(1969-)가 2012년 독일 카셀 도쿠멘타에서 영상 작품 '세상의 저편'을 선보였다. 나란히 설치된 두 스크린은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녀를 각각 보여준다. 배우 이정재가 연기한 남자는 휴먼지가 날릴 듯 날고 쇠락한 공간에서 종말을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까지 예술을 추구하는 미술가다. 배우 인수정이 분(扮)한 여자는 멸균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기계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미래의 신인류다. 두 세계의 단절은 색감을 통해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장벽에서 어렴풋이 오렌지빛 석양이 들어오는 남자의 세상은 그나마 온기가 있지만, 여자의 공간은 차고 푸르고 날카로운 형광빛 일색이다.



문경원과 전준호, 세상의 저편, 2012년, 2채널 HD 영상과 음향, 13분 35초, 카셀 도쿠멘타 설치 장면.

'세상의 저편'은 문경원과 전준호의 장기 프로젝트 '미지에서 온 소식'의 일부다. '미지에서 온 소식'은 19세기 말 영국 예술가 윌리엄 모리스의 소설 제목이다. 유토피아 서사의 효시인 이 소설에서 모리스는 먼 미래에 혁명이 일어난 다음 도래할 이상 사회를 묘사했다. 모리스의 시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경원과 전준호는 기술 발전과 자본주의

의 패배가 불러온 문명의 종말 이후를 상상한다. 과거 모리스는 혁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전쟁과 대량 살상, 기후 위기, 생태 교란 등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에 직면한 21세기의 미술가들은 더 이상 이상향을 바라지 않는다.

13분 남짓한 영상 말미에 여자는 우연히 시공간을 초월해 남자가 남긴 작품을 접하고, 이를 통해 희미하게나마 이미 사라져 버린 자연의 존재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위력에 점점 압도되는 세상에서 예술은 과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포스트 교수·서양미술사

## 社說

### '이재용 무죄' 삼성 총수 10년 옥아멘 결과가 뭐냐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주시 사세를 조종하고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등 19개 혐의에 지난 2020년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안은 참여연대 등이 쟁점화한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받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팀장 부장 김사가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들이 죄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해 잡는 이른바 한국식 '특수 수사' 방식으로 이 회장을 수사했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한 사람이 한꺼번에 19개의 죄를 짓는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그런 무리한 기소를 하더니 19개 혐의 전부가 무죄가 됐는데도 이 검찰들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AI 혁명이 현실화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 혁신

경쟁을 벌이는 중대한 글로벌 격변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과 총수 이재용 회장은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어야 했다. 2017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후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사면으로 가석방되기까지 총 560일간 구속 수감됐다. 국정 농단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황당한 혐의였다. 어떻게 그런 추상적 내용으로 사람을 감옥에 넣는가. 이 수사 역시 윤 당시 특검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일환으로 강행됐지만 문정권은 이 회장을 2018년 방북에 동행시키는 등 정치 쇼에도 동원됐다. 사면 이후에도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피고인으로 100여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해외 현장을 찾은 시간보다 법정에서 선 기간이 더 길었다.

그 10년 동안 '삼성 위기관'은 현실이 돼버렸다. 사법 리스크에 짓눌린 사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은 제대로 성사된 것이 없다. 대만 TSMC 등 경쟁기업들은 날아다니는데 삼성은 SK하이닉스에도 추월당했다. 2021년 초 500조원이던 시가총액은 현재 300조원이다. 지난 10년 삼성과 이 회장 때리기가 나라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나.

### 현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술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작지 않다. "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마 후보 문제 관련 국회 의결은 없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지난달 3일이다. 이에 앞서 현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 접수돼 있었다. 이중 한덕수 전 대통령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 결론 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반면 마 후보 재판은 변론을 한 번만 하

고 종결하려 했다.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3시간 만에 기각한 적도 있다. 왜 이 문제만 이렇게 서두르는가.

헌법 재판은 하나하나가 국가 중대사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현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마 후보 문제에 대한 현재의 행태는 공정, 신뢰, 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이었다.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4명이 이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었다.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특정 판사 그룹 출신이다. 이들의 행태는 헌법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 결정을 하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추천 헌법 재판관들이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였으나 이 숫자를 얻지 못하자 '일단 후퇴' 했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청구인 자격 문제 논란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경솔하고 위험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몰아서 일하면 안 되나' 李 대표, 이상식 왜 외면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나"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분기, 반기 단위로 적용하지는 것은 누구도 손에 보는 것이 없는 합리적 방안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어떤 예외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노조의 반대 때문이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기업이 가장 중시해 온 사안이다. 중국 기업은 노동법 위반 단속 격정 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에 제한이 없다. 일본도 고소득 연구직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졸면 죽는' 세계시장에서 이런 나라 기업과 한국 기업이 경쟁이 되겠나. 중국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칩소크는 세계 각국이 총력전 방식으로 벌이는 최첨단 기술 개발 경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중국 연구진은 '주 52시간'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만이 아니라 세계의 군사·안보 지형까지 바꿔 놓을 수 있는 전선 중의 최전선이다. 반도체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일컫는 한국이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탈레반식' 주 52시간제라는 족쇄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이 대표가 민노총 등 지지 세력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주 52시간제 개혁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 좌파 운동권 집합소(아지트) 되나

# 인용하면 간판 내려라... 헌법재판소 아니라 《운동권재판소》 된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형식요건 미비 청구에 손들어 주면 안돼  
극좌 사법 카르텔, 현재도 "꿀꺽" 하나  
서구에서 성공 못한 [진지전] 한국서 현실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거부를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는 우원식 손을 들어주려 다 비만이 폭발하자 판단을 일단 연기했다. [사법부를 장악한 좌파 카르텔]이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몰아치는 느낌이다.

#### 법관이 지배하는 나라

오늘의 한국 사법 현장은 어떤가? 이동호 변호사는 썼다. "12.3 계엄 이후 영장 재판을 보며 법치주의가 무너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의 지배] 아닌 [법관의 지배]가 행해지고 있다."

로 있는 공익인권법 재단에서 일한다.

\*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원식 의장의 청구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으므로 전원 일치 각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인용이라면, 추후 모든 결정 거부한다

주진우 의원은 결론지었다. "헌법재판소 법 24조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문형배-이미션-정계선 재판관은 사건을 맡지 않는 게 맞다.]"

◀ 헌법재판관 8인(왼쪽 상단부터, 김형두(김영수 지명), 조한창, 정정미(김영수 지명), 이미션(우리법연 후신 소속), 정형식, 김복형, 문형배(우리법연 소속), 정계선(우리법연 소속).)

마은혁까지 가담하게 되면, 9명 중 4명이 좌파 카르텔 출신.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김영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2명까지 감안하면 좌파 6명이 현재를 장악,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낼 게 됐다.

© 서성진 기자

#### 사법이 혁명운동 도구로

문형배, 이미션, 정계선, 마은혁은 모두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와 기타 극좌 운동권 출신이다. 김영수 전 대법원장이 이런 부류를 사법부 곳곳에 내리꽂았다.

문형배, 이미션, 정계선, 마은혁도 그럴 모양인가? 심히 불안하다. (586 이래 [운동권 맨발]의 집요함-완고함-중독성)을 익히 보고 질려버렸기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썼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다. 접촉 가능성 없나? 문 재판관은 자신을 《우리법 연구회》의 가장 왼쪽이라 했다.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말했다. 문 재판관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왕전 용사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이라 썼다고 정말 그런가?

2월 1일 전국의 자유 국민은 일어서 외쳤다. 평화문, 의도, 서초동, 강남, 부산역, 인천, 대전, 전주에서. "공정을 잃은 판사들이 현재를 좌우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

운동권 현재를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2월 3일 게재 되었습니다.



#### 현재도 잡아먹히는가

헌법재판소가 막 나갈 것인가. 《인민 노련》 출신 판사 마은혁을 현재 재판관으로 기어아 끌어들이겠다는 것인가. 최상목 대행은 여-아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를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좌파 재판이던 무한정 오래 끌었다. 좌파 구속 청구문 온갖 구실로 기각했다. 《혐의는 소멸되었으나 정당 대표라 구속하지 않는다》 어찌고.

좌파 판사들은 《비판 법학(critical legal studies=CLS)》을 내세운다. 재판은 좌파 이념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때 판사들이 꼭 그랬다. 그들은 《좌파 단두대》의 충실한 칼날 노릇만 했다.

\* 이미션 재판관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명절에 만나 예단이 형성될 수도?

\*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이 이사장으